

심규선의 코멘트

▶오코노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한일병합 이후의 한일관계를 통시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함으로써 여러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1965년 체제의 정치적 수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3·1절 연설을 65년과 98년 체제의 부정과 화해의 좌절로, 문재인 정권의 역사관을 김구 노선의 부활로 본 것은 신선하다.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정체성(Identity)과 존엄(Dignity)의 개념으로 한일관계를 설명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발표자도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학계 일부의 지적에 동의한다. 즉 미래의 한국은 당당한 국가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공세적 자신감과 미래의 일본은 비굴한 국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수세적 자존심이 충돌하는 접점에 과거사 갈등이 존재한다. 자신감과 자존심은 정체성과 존엄을 구성하는 한 요소일 것이다.

한일관계를 다음과 같은 변화의 시각으로도 분석할 수도 있다.

- ①정치주도 → 국민주도
- ②타율 규제 → 자율 규제
- ③소수 요인 → 다수 요인
- ④미시적 세계 → 거시적 세계
- ⑤이성적 관계 → 감성적 관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한국은 수세에서 공세로, 현상유지에서 현상변경으로, 내적 단결에서 대외과시로 바뀐데 비해 일본은 반대여서 양국 갈등이 더 심한 것은 아닌지.

오코노기 선생님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운곽을 결정지을 요소로서 대등한 경쟁관계, 국제 시스템의 변화, 전략공유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동의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외부적 요인이나 과거의 사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내부의 의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가능하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듯. 이는 결국 국민의 자각과 설득, 리더십과 정치권의 열린 자세, 국제적 시각의 공유 등으로 귀착될 것 같다.